

14주차) 한국 현대사와 영화 '국제시장'

1차시 Page 2 한국전쟁(6.25전쟁)

Page 3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이었던 38선을 거쳐서 남침을 함. 한국전쟁이 시작됨.

당시 북한군은 남한의 국군에 비해서 전투력이 압도적이었음. 그랬기 때문에 국군방어선 곳곳이 돌파됨. 당시 미국의 대통령(트루먼)은 참전을 결정하고 UN 안전보장 이사회를 소집함(26일), 이 안전보장 이사회에서는 당시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함. 그러면서 북한에게 철수하라 권고했지만 북한은 무시함. 그러자 안전보장 이사회에서는 북한군에 대한 군사 제재를 결정함(28일)

북한군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음. 8월 1일 무렵 낙동강 방어선이 형성됨. 낙동강 방어선을 중심으로 북쪽은(국토의 90%를 북한군이 점령한 상태) 부산이었음. 한국군(남한군)과 UN군은 부산을 지키기 위해서 낙동강 방어선에서 1달 반동안 전투를 벌임. 맥아더가 인천상륙작전을 9월 15일에 수행해서 성공함. 인천은 국토의 중간, 여기 상륙을 하니 북한군의 보급선이 끊기게 되고 전세가 바뀜.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고 15일만에 남한군과 UN군이 서울을 수복하고 10월까지 북진을 함. 그런데 10월 25일날 중공군이 참전해서 기습적으로 공세를 벌이기 시작함. 당시 공세가 강했기 때문에 UN군도 11월 말부터는 다시 퇴각을 시작함. 11월 14일에는 함경남도 흥남에 집결해서 육상으로 철수하기보다는 배로 철수하기 결정하고 철수를 시작함. 이것이 흥남철수작전이었음.

메러디스 빅토리호라는 화물선에 14000명의 사람들이 부산항을 향해서 감.

Page 4

한국전쟁은 1953년 7월 27일에 정전협정이 체결됨. 정전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3년 1개월 2일동안 진행됨. 흥남철수작전 같은 대표적인 사건으로 월남한 피난민들이 굉장히 많았음.

한국전쟁은 국제전이자 이념전이었음. 남한과 북한만 치른 전쟁이 아니었음. UN군, 중공군도 참여하고 소비에트 연방도 개입함. 그리고 냉전이라고 하는 시대적 이념 때문에 발발한 전쟁이었음.

이 전쟁으로 대한민국은 냉전질서가 유지되던 진영, 이른바 자유진영이라고 얘기하는 진영으로 완전히 편입이 되었고, 이후 자유진영의 일원으로써,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적으로 경제 발전 등의 변화를 꾀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수많은 인명손실을 가져왔음. 사회적 기반도 부러채 흔들었고 물리적으로나 사회 문화적으로나 한국전쟁은 한국사회 전반에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옴.

전쟁은 인구변화를 크게 가져옴. 그 인구 변화는 한국사회의 구조 재편으로까지 이어짐. 전쟁기간동안 남북한의 전체 인구를 통틀어서 300만명 이상의 인명이 희생됨. 이렇게 많은 인구가 희생되다 보니 국가가 공적으로, 제도적으로 개인의 안위를 보호해주기 힘들었음. 그런 상황에서 개인은 가족을 중심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가족 중심의 생존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게 됨. 살아남는데 있어서 1차적인 윤리는 굉장히 배타적이고 소규모의 가족중심의 이기적인 성향이 극대화 될수밖에 없었음.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게다가 전쟁의 폐허와 굶주림을 경험하게 되면 생존을 위해서 실용적인 것, 물질적인것을 굉장히 중시하는 가치관을 갖게 됨.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의 극단적인 모습들이 표면으로 많이 들어남.

이러한 성향은 우리 사회의 명분이나 예의, 체면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한국의 가치관과는 굉장히 상반되는 것임. 따라서 한국사회 전반이 가치체계의 혼란을 겪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한국의 사회적 배경, 그리고 그로 인한 한국인의 심리 기저도 크게 변하게 됨. 사회적으로는 많은 가족들이 가장이 부재하게 되고, 가족도 해체가 되는 경우가 많았음. 그러면서 가족의 기능이 변화하게됨. 미군 주둔으로 인한 미국문화의 영향도 생겨남. 또 그런 가운데 혼혈아들도 사회적으로 탄생함.

전쟁은 사회 전반을 다 파괴시키기 때문에 계층 격차도 많이 파괴됨. 다 같이 못살게 됨. 평준화 의식과 더불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다같이 못사니까 자신은 더 잘 살아보겠다는 지위 상승에 대한 욕구가 형성됨. 그게 교육열의 과잉으로도 이어짐.

이렇게 전쟁을 거치게 되면서 등장하게 된 사회문화적 변화는 오늘날 한국사회의 특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의 근원지일 수도 있다. 그 영향이 많이 남아있음.

Page 6

국제시장은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형성된 공간임. 국제시장은 원래 시장이 아니었음. 1840년대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도발하면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함. 미국이 폭격할 것을 대비해서 공터로 남겨둔 곳임. 당시 해방이 되면서 일본인들이(부산에 일본인들이 많았음) 해방된 후 일본으로 돌아가기 위해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팔았음. 그러면서 이 공터가 그렇게 활용되면서 시장으로 변하게 됨. 또 당시 일본이나 다른 해외에서 거주하던 동포들이 배를 통해 귀환하면서 부산으로 오게 됨. 부산에 머물면서 일본에 가져왔던 물건들을 파는 장소가 됨. 돛대기시장이라고 불렸음.

국제시장은 1950년 6월을 기점으로 미군부대에서 흘러나온 각종 물품들이 유통되는 공간이 됨. 부산 경제계에서 굉장히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공간이 됨. 전쟁경기를 타고 급성장함. 해방 후부터 전쟁기까지의 혼란기를 거치면서 굉장히 여러가지의 문물들이 공존하는 장소가 국제시장이었음.

국제시장이 확대가 되니까 국내 시세까지도 좌우할 정도였음. 또 부산은 피난민이 많이 모여드는 특수한 곳이었음. 특히 북한 피난민들이 많았는데, 이런 북한 피난민들의 사회적 영향력이 컸음(수가 많으니까). 부산에 원래 살던 원주민들이 이걸 경계하는 사회적인 알력관계도 형성되었음.

부산이라는 공간도 전쟁으로 굉장히 많은 것이 변함. 부산이 임시수도가 됨. 전국에서 수많은 피난민들이 몰려옴. 부산의 지역 구성원도 크게 변화함. 6년사이 인구가 2배 이상 증가함. 귀환 동포, 피난민이 부산에 많이 정착함.

부산이 당시 임시 수도로써 경제의 중심지이기도 했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하기에 유리한 곳이 됨. 그렇게 새로 유입된 사람들은 용두산 판자촌으로 모여들게 됨.

2차시 Page 7

영화 속 고모부는 생계 활동에 있어 한발 물러서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음. 이것은 전쟁으로 인해 생활기반이 무너지게 되면서 기존 사회적인 영역을 담당했던 아버지의 역할이 다소 축소되고 생계를 책임지는 어머니의 역할이 부각되는 피난민 사회적인 모습이 드러난다.

생존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동안 상징적으로 가족 집단을 대표했던 아버지는 설 곳이 좁아진다. 경제력이 없는 상황에서 가부장이라는 것은 허상으로 보이기도 한다. 실질적인 생존을 책임지는자(고모, 어머니)가 가족을 이끌어가는 모습이 된다.

실제로 전쟁으로 인해 남성 인구가 대거 유실될 수밖에 없다. 가족은 원하든 원치 않든 아버지의 부재를 맞닥들이게 된다. 그런 상황에서 여성들은, 어머니들은 생존을 위해 사회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전쟁을 기점으로 여성 인구보다 적어졌던 남성 인구들은 베이비붐이 시작되는 55년이 지나서야 여성 인구를 겨우 따라잡음. 이렇게 전쟁으로 가족 해체가 일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가족적 유대, 친족적 유대도 많이 상실됨. 전통적인 가족제도와 가부장제에 기초해서 가문의 친족과 번영을 일차적인 목표로 삼았던 전통적인 가족주의가 변화하게 됨. 가부장을 대신해서 여성이 가족생계를 책임지는 방향으로 재편되는 모습들이 영화에서 많이 드러남.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 내에서는 불행이기도 하지만(아버지의 존재가 없어짐) 다른 한편으로는 가부장적인 대가족주의가 전쟁으로 붕괴됨에 따라서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는 기회가 도래되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실제적으로도 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Page 8

피난지로서 부산이라는 곳에서 굉장히 특기할 만한 것 중 하나는 노천수업과 천막교실, 피난학교이다. 이런 피난학교를 개설하는 움직임이 본격화 된 것은 1951년 1월 초 일사후퇴 무렵이다. 이 이후에 부산에서 학교들을 개설하는 조치가 취해진다.

당시 교육부 역할을 하던 문교부는 1.4후퇴가 있고 며칠 후 부산 시청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교육관련 업무를 시작함. 1월 20일에 각 학교에 피난 학생들을 수용해서 수업을 계속 하고, 피난민 중 교사들도 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도록 함.

이 조치로 인해 51년 2월 10일부터 전국적으로 일제히 학교가 개학을 함.

Page 9

전쟁기에 시작된 피난학교가 전쟁 이후까지 교육열이 이어져서 1950년대에는 교육이 팽창이 진행됨. 특히 1950년대 당시 한국 정부는 의무교육 실현을 위한 정책들을 펼치는데, 이게 교육팽창의 원동력이 됨. 전쟁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15년의 기간동안 국민학생 숫자가 3배 가까이 늘어남.

전쟁을 겪으면서 국민 모두가 가난을 겪게 되었고 거의 모든 국민의 삶이 가난하게 평준화됨. 이러한 상황은 역으로 지위상승의 문이 열려있다는 것을 의미함. 그러다 보니 사람의 마음 한편에는 지위상승, 계층상승에 대한 욕구가 들끓게 됨. 이것이 교육열을 자극함. 이러한 교육열이 전후에도 계속 지속되어서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교육인구의 비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함.

전시를 겪으면서 왜 교육을 중시하게 되었을까? 전쟁을 경험하게 되면 전쟁을 통해서 모든 물질들이 파괴되는 것을 목격함.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녀에게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어떤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안전하고 보장된 것이란 사실을 깨닫게 됨. 전쟁을 겪으면서 이걸 체험하게 되고 교육열이 확 증가하고 이후에도 쭉 이어지는 현상들이 한국 사회에서도 나타나게 됨.

고등교육의 신장이라는 부분은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해가는데 상당한 원동력이 되었다.

영화에서는 가족의 희생을 발판삼아서 교육에 투자하는 모습들도 많이 나타남.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있었음.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

3차시 Page 10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한국은 굉장히 가난해짐. 미국에게 원조경제를 받음. 그 원조에 한국은 50년대에 절대적으로 의자함. 미국의 원조를 통해서 삼백산업(밀가루, 설탕, 제분업)도 구축될 수 있었음. 1961년에 미국이 경제 원조를 차관으로 전환함. 당시 한국의 정치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이것에 대한 돌파구로 서독과 교섭을 함. 서독정부에게 차관을 얻어보려고 했는데, 61년 12월에 차관교섭회담이 시작되고 결국 차관을 얻음.

당시 서독은 광산노동자가 부족했음. 경제가 살아나니까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면서 석탄 수요는 점점 증가함. 그러다 보니 광부가 많이 필요했음. 63년에 계약처럼 해결된 것은, 한국 광부들은 독일법에 따라서 고용 조건을 독일 광부와 동일하게 해준다는 광부협정이 맺어짐. 63년 12월에 이른바 파독광부 제1진으로 247명이 김포공항을 통해 독일로 떠남.

간호사는 민간 차원에서 시작되어 정부 차원으로 바뀌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짐. 69년 8월 한국과 서독간에 간호요원 협정을 체결함. 4년 사이 6900명 가까운 사람이 간호요원으로 감.

이렇게 파독광부와 간호사, 이런 협상을 통해서 노동력을 해외에 제공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국내에서는 실업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한 일익을 담당하는 역할을 함. 이들이 해외로 나가서 일을 하니 외화벌이가 한국의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했다.

Page 11

60년대에는 국가 민족적 목표가 경제성장이었음. 62년부터 69년 사이의 기간동안 국민총생산이 연평균 10%씩 증가했음. 이 과정에 동참한다는 인식을 파독광부나 간호사들도 가지고 있었음. 개개인이 독일에 가서 광산에서 일하거나 간호사로 일하는 것의 일차적인 목표는 나와 내 가족의 생존이 맞다. 하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외화를 송금하고 기술력을 습득하는 것들이 국가적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음.

Page 12

베트남 전쟁에 한국이 파병했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다. 베트남전쟁에 참여했던 한국인에게 베트남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었음. 개인과 기업, 국가에 이르기까지 베트남전쟁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상당히 특별했다고 볼 수 있다. 74년 여름이라는 시기는 한국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주도 아래 3차 경제개발계획이 한참 진행중이었을 때이다. 베트남전쟁 기간동안은 군인의 파병뿐만 아니라 국내기업의 해외진출도 굉장히 많았다.

당시 70년대 초중반 같은 경우 60년대에 있었던 경제개발계획, 외화벌이를 통해서 공업국가로서의 안정적인 궤도가 상당히 구축

되어있는 상태였다. 그렇기 때문에 공업 기술자들도 베트남에 파견할 수 있었음. 이런 베트남전쟁기의 기술, 기업 파견의 경험으로 인해 기술과 인프라가 더 축적됨, 이게 또 자연히 중동, 동남아 진출의 발판도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파병이 60년대에 결정되고 이 파병 결정으로 인해 한국의 기업들이 베트남에 상당히 많이 진출함. 특히 당시가 경제개발계획이 한참 진행중이었을 시기였기 때문에 수출이 국가 제1의 목표다 라는 표어도 만들.

한국에게 있어서 베트남은 전쟁터이기도 했지만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시장이기도 했음.

본인이 가족의 가난을 극복하는데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경제성장에도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많이 인식하고 있음.

Page 15

한국은 1950년에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서 그 전쟁으로 인한 혼란과 타격을 겪음. 그 이후에는 국가중심의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 경제 급성장이 이루어짐. 극과 극의 경험을 4-50년 사이에 겪음.